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기는 성경 안에서 아마도 가장 어려운 성경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드는 의문점들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는 의인이 받는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이 모두 구구절절 옳은 말들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친구들을 책망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욥기를 대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욥기를 함께 통독하시면서 욥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는데 오늘 1장에서 보시는 대로 한 순간에 모든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에는 가축의 수로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욥은 양 칠천 마리, 낙타 삼천 마리, 암나귀 오백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고 종도 많이 있어서 동방 사람들 중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은 큰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시련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고난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 알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자신의 자녀와 재산을 잃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몸 전체에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참담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삼 년은 간다는 말이 있지만 욥은 하루 아침에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망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들은 이러한 욥의 고난을 보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 해도 이 욥이 처한 상황과 욥이 받는 고난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의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의문을 갖기보다는, 그 욥의 모습에 나의 모습을 투영시켜 '나도 저런 고난을 받아 쫄딱 망하게 되면 어떻하지?'라는 염려를 갖기 보다는,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욥을 가리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욥을 온전하다라고 하였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완전하고 흠이 없고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시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욥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악에서 떠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의인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갖은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친족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하시고 미쳤다는 말도 들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빌라도 앞에 끌려가셔서 침 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호

소하셨고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욥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오늘 욥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참혹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